

## ‘이재명의 웹자서전’

### 이재명이 살아온 이야기를 국민께 들려드립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이재명 후보의 공식 블로그에 올려지기 시작한 웹자서전이 이제 40편의 에피소드까지 채워졌습니다.

이재명의 유년 시절 이야기, 소년공 시절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 간의 애뜻함, 어렵게 공부하며 함께 버틴 벗의 이야기, 변호사 시절 이야기, 김혜경 씨와의 추억까지.

웹자서전은 그동안 이재명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담아 삶의 마디마다 중요한 순간들을 삽화와 짧은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내 뿌리는 그곳이고 나는 거기서 출발한 사람이다.” 30번째 에피소드에 담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뿌리를 자각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인지도 모른다” 19번째 에피소드에 담긴 사회와 사람을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을밤, 장작 타는 소리 같은 소곤거림이 되길 희망한다’ 는 이 작은 이야기들은, 경북 안동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성장해온 과정, 대통령 후보에 이르는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웹자서전은 최근 출간된 ‘인간 이재명’ 을 자원봉사자들의 손으로 재구성되고 엮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치인 이재명을 떠나, ‘사람 이재명’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웹자서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웹자서전은 남은 에피소드를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있는 그대로의 이재명으로 국민께 찾아가겠습니다.

웹자서전은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과 더불어민주당 ‘재명이네 마을’ (<https://www.jmleetogether.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